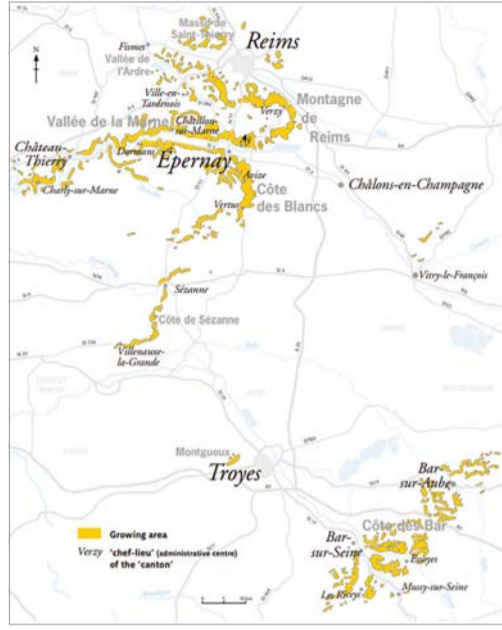


기후변화? 두렵지 않다! 佛 상파뉴·알자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프랑스 상파뉴 지역.

제로 도사주(Zero Dosage) 샴페인. 알자스의 레드 와인.

요즘 따끈따끈한 와인 트렌드다.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이슈가 있다. 와인이라면 어려운 와인 용어에서부터 막혀 알쏭달쏭 감을 잡기 힘들 테지만 중급자부터는 아마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모두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라는 점이다. 사실 기후변화에서 자유로운 와인 생산지는 없다. 유럽은 지난 2003년 이후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다. 포도가 빨리 익을 수밖에 없다. 20~30년 전과 비교하면 수확시기가 최대 한 달 이상 당겨졌다. 특히 화이트 와인 산지들은 더 비상이 걸렸다. 포도알이 빨리 익어버리면 화이트 와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도를 제대로 살리기가 힘들다.

상파뉴(샴페인)와 알자스는 프랑스에서도 샴페인을 포함해 고급 화이트 와인의 산지로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은 이들 지역 와인너들은 기후변화를 말하면서도 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해진 약간의 온기가 다양성을 가져다줬다는 분위기다.

샴페인을 만들 때 보면 도사주라는 과정이 있다. 숙성을 진행하면서 병목에 모아진 효모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면 모자라는 용량만큼 와인과 당을 추가하는 일이다. 이때 첨가하는 당의 양에 따라 샴페인의 당도가 결정된다.

제로 도사주라고 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사이 많이 선보인 제로 슈가 소주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당을 추가하지 않았던 예기다. 그간 너무 튀는 산도를 일부 눌러주기 위해 달달하게 해야 했는데 재배기간 따뜻해진 날씨 덕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샴페인 하우스가 첨가한 당의 양을 줄이는 추세다. 요리를 할 때도 조미료를 덜 치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샴페인 하우스들 역시 포도품종이나 떼루아의 특징을 살리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기후변화에 표정이 밝았던 진짜 이유다.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알자스 지역에서는 레드 와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피노누아 품종으로 그전에도 와인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알자스 그랑 크뤼급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이란 말이다.

알자스는 2022년 빈티지부터 51개 그랑 크뤼 지역 중 두 개 지역에 대해 피노누아에도 그랑 크뤼 등급을 표기할 수 있게 허락했다. 알자스가 그랑 크뤼 등급을 만든 197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파뉴와 알자스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터. 와인 생산자들은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으로 미래를 준비 중이다.

박수진 WSA와인아카데미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알자스&샴페인 마스터클래스에서 “매년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와인너들이 모두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건강하면 어떤 변화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알자스처럼 친환경 재배가 앞선 곳은 물론 상파뉴와 같이 기후적으로 쉽지 않은 곳도 유기농법으로 전환 중”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활력·의지와 창조력 이상의 그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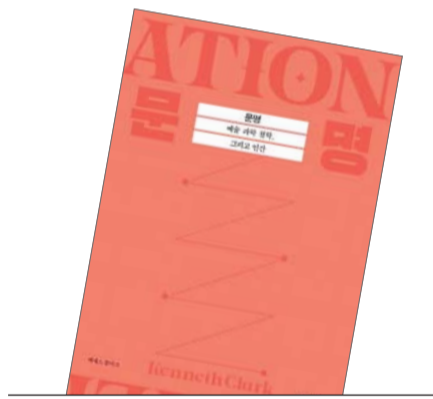
문명이 무엇인지를 단 몇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해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고 ‘문명’의 의미를 풀어냈으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법. 국립국어원은 그 바로 뒤에 ‘흔히 문화를 정신적·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하나, 그리 엄밀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다소 아리송한 단서를 달아 놓았다.

‘문명’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 해답이 제시돼 있을까. 문명의 저자인 영국의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첫 장에서 ‘나는 문명이 뭐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는 문명을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문명인지 식별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클라크는 영국의 미술비평가이자 화가인 로저 프라이가 소장했던 아프리카 가면과 벨벳데레의 아폴론을 비교하며 왜 후자만이 고도의 문명을 구현한 작품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책은 “양쪽 모두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정신을 표상한다”면서 “아프리카 가면의 상상세계는 아무리 작은 금기의 위반에 대해서도 곧바로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공포와 암흑의 세계이며,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경우 빛과 자신감의 세계다”고 밝힌다.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지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아름다운 그리스의 신상은 인간에게 이성과 조화를 가르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클라크는 “어떤 시대인지 특정할 수는



문명

케네스 클라크 지음/이연식 옮김/소요서가

없지만, 인간은 매일같이 생존경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밤의 공포와 싸우는 한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육체와 정신 양면에서 어떤 소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인간은 이 필요를 신화를 통해, 춤과 노래를 통해, 철학체계를 통해, 그리고 시각적인 질서로 채워 나갔다.

저자는 문명은 활력과 의지와 창조력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역설한다. 바로 영속에 대한 감각이다. 방랑자나 침입자는 늘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들은 미래 대신 당장 오늘의 전투만을 고민했다. 그래서 돌로 된 집을 짓거나 책을 저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문명이라면 적어도 공간과 시간의 양면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자신이 지나온 곳과 나아갈 길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496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월경자의 정치사

시오데 히로유키 지음/임경화, 은희영, 이승찬 옮김/소명출판

책은 일본이라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풀어나간 기존의 정치역사서를 탈피해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이민과 식민의 형태로 이주한 일본인 ‘월경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새로 쓴 정치사다.

저자는 국경을 넘어 거처를 옮기는 이민과 일본의 지배지역으로 이주하는 식민을 함께 다루며, 지배지역에서의 식민주의적인 지배-종속 구조, 본국과 연계 등

으로 형성된 민족 간 관계가 일본의 정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민과 식민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만주국’ 이주의 복합성, 지배민족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수자의 처지에서 기득권층과 교섭해야 했던 월경자들의 아이러니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663쪽, 5만원.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

오찬호 지음/북트리거

여성해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괴임약’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떠넘기는 근거가 됐고, 알약 한 알로 고통을 견디게 해준 ‘진통제’는 강한 중독성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케 한 자본주의의 총아 ‘플라스틱’은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쓰레기로 돌아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책은 ‘혁신’이라는 빛나는 말

뒤에 얽힌 지옥의 실상을 다룬다. 불편함이 줄었으니 혁신인가. 편리함이 늘었으니 문제없나. 혁신 이후 모두가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자는 “혁신의 반대편에 지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인간다움, 즉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책은 경고한다.

336쪽, 1만7500원.



기밀문건 속 한국전쟁

선즈와 편저/이강범, 김동길 옮김/피엔에이월드(PNA World)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끝났는가. 아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책은 개전 전야와 전쟁 발발에서부터 정전 조인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기간 김일성과 모택동, 스탈린이 주고받은 암호 전보와 극비 서한 504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모음집이다.

‘항미원조’로 출병을 결단, 압록강을 건너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남침을 용인한 스탈린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 소련은 어떤 관계였는지 등 한국전쟁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그 내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왜 이 땅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지 밝힌다.

832쪽, 7만2700원. /김현정 기자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하원 세입위, ‘中핵연 규제 유예’ IR A규정 거부 결의
▲15일 서울서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협력 증진 논의 /사진 뉴시스

▲중국 군용기 56대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항모 훈련 연관
▲“日, 항공연료 부족 해결 위해 한국서 수입 추진”



▲“헝가리 총리, 나토 회의 후 트럼프와 회동…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논의” /사진 뉴시스
▲필리핀 민다나오섬 남쪽 해상서 규모 6.7 지진